

韓國教育研究

Korea Educational Research 제2권 제1호/ ISSN 3059-1694

2026, Vol. 2, No. 1, pp. 61~87

MCS 워크북을 활용한 육군 부사관의 진로 탐색 참여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s of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Using the MCS Workbook

정녀름¹⁾ · 임은미²⁾

《요 약》

이 연구에서는 현재 육군에서 근무 중인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MCS 워크북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의 참여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적 표집 방법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한 연구 참여자 4인을 선정하였고, MCS 워크북을 활용한 진로 탐색을 각 3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공통된 2개의 주제와 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경험의 의미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각자 다른 경험과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성하여 공통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육군 부사관이라는 직무에서 각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특수조직의 직업군이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경험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육군 부사관, 구성주의 진로 상담, MCS 워크북, 내러티브 탐구

1)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졸업, 주저자

2)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육군 부사관은 전문 직업군인으로서, 군 전투력 발휘의 충추적 존재이며 국가 안보의 핵심 인력으로 조직의 필수적인 계급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부사관이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21살로, 대부분 초기 성인기에 부사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국감자료, 2013). 진로 발달이론에 의하면, 초기 성인기는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을 바탕으로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이며(Super, 1990), 여러 대안을 평가하고 진로 목표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직업·경력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Ginzburg, 1984).

~~이러한~~ 부사관들은 대부분 초·중·고등 교육에서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 과정이 주류였기에 충분한 진로 탐색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최지은, 조용선, 2022). 그 결과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자신과 직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직업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등 내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국방연구원(KIDA, 2025)의 군 간부 대상 직업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2020년 대비 2023년 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희망 전역을 신청한 육군 부사관이 5년 새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국민일보, 2025), 2024년 기준 신규 충원에 필요한 인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YTN, 2024)는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 되었다. 이와 같이 직업 만족도의 하락은 단순히 간부들의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역을 증가와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 조직은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특수 조직으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직업 윤리가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군 간부들의 이탈과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부사관들의 주도적 진로 탐색 경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에 직업 세계로 진입하여 현재 근무 중인 부사관들에게 자신과 직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두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만족스러운 생애-설계를 구성하여,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육군에서는 전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의 대상이 ‘전역 예정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외, 현역으로 근무하는 동안 진로 탐색이나 직무에 대한 간부 교육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거나 다른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 군은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며, 상하의 위계질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조직으로 진로 탐색이나 다른 직업에 대한 계획, 준비를 위한 실행은 동료와 상급자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많은 간부들은 자신의 내적 특성 탐색은 물론, 현 직무에서

의 만족도나 다른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MCS 워크북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참여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부사관을 위한 진로 탐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로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기-학습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나의 진로 이야기(My Career StoryL MC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MCS 프로그램은 반영한 자기-학습 진로 평가 도구로서, MCS 워크북을 활용한 개입은 반성적 능력, 희망, 서사 등을 증가시켰음을 밝혀 개인의 내러티브 재구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다(Hartung & Santilli, 2018). Santilli & Hartung(2022)의 연구에서도 MCS 개입이 반성적 능력, 희망, 서사 등을 증가시켰음을 밝혀, MCS 가 개인의 내러티브 재구성을 촉진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지연(2024) 및 유지연 & 신효정(2025)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MCS 워크북을 대상에 알맞게 변안하여 사용한 결과, 참여자들의 진로 적응성, 진로 정체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진로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추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에 대한 내적 혼란을 주변 동료들에게 드러내기 꺼려하는 군 문화의 현실에서, MCS 워크북은 일련의 질문을 통해 거부감 없이 자신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집단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용이하여 다수에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MCS 워크북이 특수 조직인 직업 군인의 진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현재 근무 중인 부사관들의 진로 탐색 경험은 개인 차원에서 삶의 주제 발견 및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필요시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는 등 주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육군 부사관의 MCS 워크북을 활용한 진로 탐색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육군 부사관의 진로 발달

국감자료(2013)에 따르면 부사관 평균 임관 연령은 21세로 나타났다. ‘2025년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한 고교생들은 부사관 모집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약 80여명이 현장에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25). 이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 후기의 학생들이 부사관을 지원하였음을 시사한다. 부사관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곧바로 직업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부사관에 선발되기 위한 장벽은 비교적 낮고 빠른 연령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부사관들은 충분한 진로 탐색 경험을 하지 않은 채 부사관 직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발달적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진로 선택은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한다(Ginzburg, 1951; Hoff et al.). Ginzburg(1984)의 이론에 따르면, 부사관들의 평균 임관 나이 21세(국감자료, 2013)는 현실기(18세~성인 초기)에 속하며, 해당 단계에서는 복수의 대안을 평가하고, 진로 목표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직업 계획을 수립한다. Super(1990)의 이론에서도 진로 발달은 생애 전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해당 시기를 탐색기(15세~17세)로 설명할 수 있다. 탐색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직업을 구체화하며, 직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얻는다.

Super(1990)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진로 발달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하였다. 즉,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 진로 발달의 핵심은 자기 이해, 직업 정보 탐색, 진로 정체성 수립으로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직업적 성공과 만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Arnett, 2000; Hoff et al., 2018, 2022). 김민정, 김봉환(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시기는 취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전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진영, 이광호(2012)도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여행 등의 모든 경험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적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따라서 안정적인 형태로 충분한 탐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청년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사관들은 진로 발달의 핵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충분한 자기 탐색 없이 직업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

로 직업 만족 저하와 내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직업에 대한 자기 이해 부족과 직업 탐색의 부재는 직무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군 조직에서의 부적응과 소진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 구성주의 진로 상담

진로 구성주의 이론은 내적 구조의 성숙보다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맥락주의적 관점을 취한다(Savicas, 2019). 구성주의 진로 발달은 Super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시작되어, Super의 이론을 현대적 시각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 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을 재개념화한 것이다(Savickas, 2005:42). Super(1990)는 진로의 발달을 자아개념의 발달로 간주하였다. 이는 전 생애 동안 삶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일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흥미·가치 등에 관한 태도와 의미를 말한다.

즉,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은 개인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직업적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진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고 설명한다(Savicas, 2019). Savickas(2015)가 제안하는 구성주의 진로 상담의 과정은 내러티브의 구성, 해체, 재구성, 협력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구성(구체적 경험)은 개인이 자기 자신과 진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 상담자와 함께 파악하는 단계이다. 즉, 전 생애에 걸친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해체(반성적 성찰)는 내담자의 관점을 폭넓게 열어주는 것이 목적인 단계로, 구성 단계의 이야기를 명료화하거나,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재구성(추상적 개념화)은 해체 단계에서 찾은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재조명해 보는 단계로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과 진로 주제를 찾아낸다. 협력 구성(적극적 실험)은 내담자가 재구성한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과거 의미가 없던 자신의 경험들이 내러티브 구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발견되어 의사결정에 활용된다(Savickas, 200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구성한 내러티브 안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며,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간다. 또한 자기 구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디자인하고 결정한다(Savickas, 2016)

3. 나의 진로 이야기(My Career Story)

Savickas & Hartung(2012)이 개발한 My Career Story(MCS)는 진로 구성주의를 실제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대표적 도구로, 개인이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자서전적 스토리로 작성하도록 구조화한 자기 서사 워크북이다. MCS는 참여자의 내담자의 삶의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정리를 통해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인생 이야기를 일괄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체성과 삶을 의미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의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Savickas & Hartung, 2012). MCS 워크북을 작성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한 자기성찰은 적응성·서술성·의도성·활동성을 촉진한다(Hartung & Santilli, 2018; Savickas et al, 2009).

MCS는 내담자 자아에 대한 비전, 직업 세계에서 참여자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참여자가 매력적인 직업들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Savickas & Hartung, 2021). MCS는 인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걸쳐 개인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스스로 서술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자기-학습식 자서전 워크북으로서(Hartung & Santilli, 2008) 자신을 좀 더 완전히 이해하고,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고,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데 의미를 더할 수 있다(Savickas & Hartung, 2021).

생애 진로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직업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자기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자신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한다(Santilli & Hartung, 2021). MCS 워크북은 자신의 생애 진로 이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실행할 방법을 찾도록 하는 작업으로 MCS 워크북 사용 안내에 따라 실시한다(Savickas & Hartung, 2021).

Savickas & Hartung이 소개한 MCS 프로그램 워크북은 ‘나의 이야기하기(Telling My Story)’, ‘나의 이야기 이해하기(Understanding My Story)’, ‘나의 이야기 실행하기(Enacting My Story)’의 총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영역인 ‘나의 이야기하기’에서 주어진 질문은 어린 시절 존경하는 인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웹사이트·잡지, 가장 좋아하는 책·영화 이야기, 좋아하는 명언·좌우명에 대한 질문에 답을 작성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간다. 전체적인 생애-진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설정·대본·조연 등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낸다. 두 번째 영역인 ‘나의 이야기 이해하기’는 앞 단계에서 구성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다. 초상화 요약은 이야기 주인공으로 내가 누구인지, 일하고 싶은 환경은 어떠한지 등 진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세 번째 영역인 ‘나의 이야기 실행하기’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직

업 환경을 탐색·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 MCS는 청중과 함께 할 때 스토리를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Hartung, 2012), 개인 상담에서 청중의 역할은 상담자가 맡는다.

선행 연구들은 MCS가 단순한 진로 관련 검사 도구가 아니라, 진로 적응성·자기반성·정체성·의미 구성 능력 등을 촉진하는 내러티브 기반 진로 개입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외 MCS를 활용한 연구는 목적과 이용 방법에 따라 크게 타당성 검증연구와 내러티브 개입 및 상담 연구, 집단 개입의 효과 검증연구, 탐색적 프로그램 개발로 구분되어 연구되었다. MCS 워크북 관련 선행 연구를 <표 1>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 MCS 워크북 관련 선행 연구

분류	연구 성격	연구자 (연도, 국가)	연구 대상	MCS 활용방식	결과(시사점)
해외	타당성 검증	Hartung & Santilli (2018, 미국)	성인 초기	MCS · CCI의 서사 비교분석	· MCS가 CCI와 의미적으로 높은 일치도 · CCT 핵심 요소를 반영 (성격 · 적응성 · 삶의 주제)
		Santilli & Hartung (2022, 미국)	청년 · 성인	MCS 기반 내러티브 개입	· 반성적 능력 · 희망 · 서사 일관성 증가
	내러티브 개입 및 상담	Taylor & Savickas (2016, 미국)	청소년	MCS & 그림서사	· 정체성 명료화 · 의미 · 구성 · 서사 외재화 촉진
		Cadaret & Hartung (2021, 미국)	대학생 · 청년	Life Design & MCS	· 진로 희망 · 자기효능감 · 진로 적응성 향상
	집단개입 효과검증	Santilli, Nota & Hartung (2019, 이탈리아)	중학생	MCS 중심 3회기 집단 개입	· 진로 적응성 유의 향상 · 미래 계획 능력 강화 · 진로 의사결정 준비도 상승
국내	탐색적 프로그램 개발	김영미 (2020)	고교생 · 청년	My Career Story 온라인교육	· 자기 명료화 · 진로 방향탐색 중심의 내러티브 프로그램
	내러티브 개입 및 상담	유종숙 (2023)	중년 여성	MCS 활용 CCI와 병행	· 자기 개념 재형성 · 진로 정체성 회복 · 진로전환 준비도 향상
		유지연 (2024)	고교생	MCS 번안, 사용	· 진로 적응성 · 결정 효능감 · 정체감 증가
		유지연 & 신호정 (2025)			· 진로 스트레스 감소 · 효과 추후 유지
		선미진 (2024)	대학생	MCS · CCI의 비교 분석	· MCS의 특성과 한계 · 직접적인 CCI와 비교

Ⅲ. 연구 방법

1.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육군 부사관으로 현재 15년째 근무 중인 현역으로, 육군 부사관들의 진로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실정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대상을 ‘육군 부사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4학기에 걸친 연구 방법 및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2년 간의 실습을 통해 연구자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 방법과 논문에 대한 스터디 참여 및 논문과 서적 정독을 통해 질적 연구 및 내러티브 연구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연구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간부들을 모집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대상자를 목적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4명(남군 2명, 여군 2명)으로 남녀의 성비를 맞추었다. 다만 여군은 소속 부대 안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한정되어, 익명성 보장의 문제로 연구 참여자 정보에서 성별을 삭제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체험을 탐구하는 연구로 개인이 드러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윤리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검토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임관 연령	경력	학력	연구 참여자가 밝힌 지원동기
A	24세	10년	학사	· 현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알고 싶음 · 직무에 대한 동기와 의미를 찾고 싶음
B	20세	10년	사이버대 재학 중	·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음
C	21세	8년	대학 자퇴	·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음
D	23세	9년	대학 자퇴	·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음

2. MCS 워크북을 활용한 진로 탐색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진로 탐색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MCS 워크북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MCS 워크북은 Savickas와 Hartung이 2021년에 갱신하고 유종숙(2022)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Savickas & Hartung이 안내한 MCS 워크북 사용

지침에 따라 진행하되, 워크북 활용 안내를 위해 1회기는 연구자와 네 명의 참여자가 함께 만나 실시하였고, 2회기와 3회기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1:1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명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MCS 워크북에 안내된 사용 지침과 해석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별 개인의 특성에 따라 MCS 워크북을 작성하는 시간이 모두 상이하였다. 연구자는 한 주제에 대한 워크북을 작성 후 MCS 워크북의 해석본을 바탕으로 해석해 주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회기당 연구 참여자 A와 C는 1시간, 연구 참여자 C는 2시간, 연구 참여자 D는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회기별 진행 방법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MCS 워크북을 활용한 진로 탐색 진행 방법

회기	목표	내 용	과제
1회기 (집단)	· 프로그램 소개 및 진행 설명	· MCS 소개 및 프로그램 진행 방법 소개 · 연구에 대한 동의서 작성	·
2회기 (개인)	· 자신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의미 찾기	· 나의 이야기하기 · 나의 이야기 이해하기	성찰일지
3회기 (개인)	· 진로 주제 찾기	· 나의 직업 세계 이해하기 · 나의 이야기 실행하기	작성

출처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유종숙(2022)참고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 회기 종료 후 5일 내 자기성찰을 작성하여 회신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기성찰은 연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각 회기별 4명에게 모두 동일한 질문지를 제공하였으며, 질문지는 유종숙(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뷰 질문지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지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근무 중인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권유할 의사가 있으신가요?’의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질문 등을 추가하였다. 수정된 질문지는 논문 스터디를 통해 동료들과 지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안하여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자기성찰 인터뷰 질문지

회 기	주제	하위 질문
2회기	워크북 작성에 대한 소감	• 워크북 과정 중 초상화 요약 후 내 이야기 다시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시쓰기 전, 후로 당신에게 어떠한 심리적 변화가 있었나요?
3회기		• 워크북 작성을 마치고 자기에 대한 느낌과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갔나요?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 이번 회기를 통해 자신에 대하여 어떤 점을 발견하였나요? • 활동을 통해 나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 활동을 하면서 나의 진로 상황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2회기	현재 나의	• 현재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자신의 특성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와 닿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회기	진로 상황에	
(공동)	대해 생각하기	• 이번 회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 특성에 대하여 어떤 점을 발견하였 나요?
	기타	• 이 외에도 이번 회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자유롭게 작성하 여 주세요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내러티브를 형성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연구 방법이다(임은미, 2025). 연구자는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 절차인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가. 현장에 존재하기

연구자는 육군에서 근무 중인 15년차 부사관으로, 근무 기간동안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동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안정적인 직업 세계에 진입하였음에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MCS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간 연구자가 1:1 대면으로 만나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MCS 워크북’을 바

탕으로 된 질문과 해석으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자는 각 회기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기성찰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5일 안에 회신받았다. 연구자는 회신받은 성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나 선입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환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회신받은 성찰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나 모호한 단어를 추가 질문을 통해 명확히 하여 참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라. 연구 텍스트 구성하고 작성하기

연구 텍스트 구성은 Spheris & Toung & Daniels(2013)가 제안한 내러티브 경험 기준을 참고하여(임은미, 2025), 연구 참여자별 주제·하위주제·의미단어를 도출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 구성에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반복하여 읽고, 필요한 경우 원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는 도출된 단어를 각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하였던 스토리를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정리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논문 스터디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지도 교수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수정·보안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를 거쳐 연구 참여자들이 담고자 하였던 의미를 확인받음으로써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별 경험 분석

본 연구는 주도적 진로 의사결정의 경험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직무에 의문점을 가진 부사관을 대상으로, MCS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장 텍스트 구성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로 총 68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이 중 연구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과거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 학창 시절 직업 흥미 검사 결과’ 등 현재 직업탐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미 단위는 삭제하고, ‘과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마음이 편안해짐, 과거의 감정 드러내어 후련함

을 느낌’ 등 중복되는 의미 단어를 통합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2개의 주제, 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5개 하위주제별로 각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이야기의 의미단위를 정리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 참여자별 경험 분석

주제	하위주제	연구 참여자	의미단위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재해석함	나의 이야기 구성을 통해 감정을 마주함	A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과 마주하면서 슬픔을 느낌 ·과거 감정을 드러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후련해짐을 느낌 ·‘존경했던 인물’이 나 자신이었다는 해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껴 눈물이 남
		B	·부모의 양육 환경이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함 ·알고있던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 ·내 이야기를 통해 나의 결핍과 부족함의 원인을 알아차림으로서 후련함을 느낌
		C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습관과 노력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깨달음
		D	·내 이야기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경험을 하게 됨 ·‘내가 동경했던 모습이 이미 나의 일부로 존재하였다’는 해석을 듣고 안정감을 느낌
	나의 감정을 확인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A	·이번 과정을 통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쓴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 깊은 울림을 느낌 ·나를 진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위로함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김 ·나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추진력이 있는 사람
			·즐거움, 도전, 행복 등 자신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서 삶의 방향성을 알게 됨 ·나를 위한 삶을 위해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려고 함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낌
			·소홀히 대했던 나의 감정을 돌봄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감정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함
		D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김 ·미래를 향한 나의 노력을 발견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됨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이 생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자신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함
자신의 직업에 대한	나의 진로 선택 이유를 발견하고	A	·타인을 보호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적 가치관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함 ·가치관이 부사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됨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함	직무특성을 이해함	B	·양육 환경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직업인 부사관을 선택하였음을 알아차림 ·다른 직업에 대해 끊임없이 갈망하였던 이유가 주도적이지 못한 진로 의사결정이 원인이었음을 발견함 ·나와 같은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전하는 직업군을 희망함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음
		C	·직무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알아 차림으로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낌
			·혼자 하는 일을 선호하고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도전이나 변화를 두려워함
	나의 가치와 부사관 직무의 가치관 일치여부 확인	D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진로 의사결정에 흥미와 적성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명료해짐
		A	·나의 내면의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였음을 발견 ·부사관이 나의 적성, 가치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정서적 안정을 느낌
			·나의 특성과 부사관 직무의 특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확신함
		B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직무를 탐색하기 시작함 ·최근 직장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현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직무를 탐색함
		D	·주변 동료들의 영향이 직무만족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됨 ·주도적 진로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흥미'로 자신과 부사관 직무의 가치관이 불일치함을 발견함
			·부사관 직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을 계획함
나의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 진로를 계획함	A	A	·부사관이라는 직업에서 의미를 찾았으며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
		B	·다른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현 직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함 ·동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언어 관련 자기개발을 시작해 보려고 함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현 직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
	C	C	·직업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계획을 세워 실행해 보기로 함 ·직업전환을 위한 단계로서 부사관 직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
			·직업전환을 위한 단계로서 부사관 직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
		D	·직업전환을 위한 단계로서 부사관 직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
			·직업전환을 위한 단계로서 부사관 직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됨

가. 연구 참여자 A의 경험 분석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의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와 직업을 유지하는데 동기와 의미를 찾고 싶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2회기에서 연구 참여자 A는 ‘내 이야기 하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해 갔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 구성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이야기에서 슬픈 감정들을 느꼈다.

“(생략) ... 막상 ‘내 이야기 이해하기’를 시작하자 내 안에 담긴 감정과 상처, 그리고 나도 몰랐던 마음의 소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어지는 ‘내 이야기 이해하기’에서 연구 참여자 A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내면의 감정들을 드러내고 편안함과 후련함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 A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해석에 과거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으며,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자신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었다.

“(생략) 존경하는 인물의 해석에서 ‘이 이야기는 결국 나 자신이었다’라는 해석을 듣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들이 사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온 내가 참 대견하고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생략) 그 깨달음은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존중과 따뜻함으로 다가왔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돌본 연구 참여자 A는 지금껏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회기를 통해 내가 지닌 진짜 모습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략) 그 가치들이 오랜 시간 내 안에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에 대해 더 진솔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A는 과거 자신을 마주하고 이해하면서 부사관이라는 직업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 안에서 부사관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발견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부여할 수 있었다.

“나는 ‘운동선수의 경험, 체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군이라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였으나,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군인이라는 직업의 선택이 나

의 내면적인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생략) 내면의 소망이 지금의 선택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게 되면서 직업의 선택은 단순한 것이 아닌 내 삶의 태도와 연결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회기, ‘내 이야기 실현하기’에서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확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다. 또한 조직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갔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현재 나와 내 직무는 참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직무에서 의미를 찾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의 내러티브를 통해 동경해 왔던 인물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며, 이는 진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다. 타인을 도와주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자신의 가치관이 부사관으로서 타인을 도와주는 일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의 직무에 확신을 갖고, 현 직무에 대한 의미와 동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나. 연구 참여자 B의 경험 분석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의 직업 만족도와 이직에 대한 고민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2회기의 ‘내 이야기하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즐거움의 감정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나, 슬프거나 두려웠던 장면에서는 덤덤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생략) .. 마음속 어디에선가 느껴지는 고풍과 부족한 욕구들이 있었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답답했다. (생략)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했고, 말하고 싶어도 남들의 반대가 두려워 이야기하지 못했고, 무언가 그만 두려고 했을 때도 다른 이들의 반대에 그러지 못했다. 그런 내가 미운적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의 이야기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부모님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직업인 군인을 선택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나의 가치관과 부사관의 직무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현재 직업이 나에게 주는 기분을 표현하자면 ‘현실적인 직업, 의무, 책임, 답답’ 등의 단어가 내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생략) 내 노력에 비해 공허함도 종종 있었기에 행복한 직업은 아니다. 내 삶을 부정하게 되는 모습으로 자꾸만 스스로를 낮아지게 만들었고, 당당하지 못하고

초라해지기까지 했다.”

연구 참여자 B의 감정은 이어지는 ‘내 이야기 이해하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 B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히 무서웠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항상 수용하고 자라왔으나, MCS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느끼던 결핍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후련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금 당장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자유롭고 편했다. (생략) 매 순간 또 다른 나의 직업을 기대하고 갈망했던 이유를 알았으며, 그토록 오랜 시간 느꼈던 결핍의 이유를 알고 나니 어딘가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연구 참여자 B는 ‘내 이야기 이해하기’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향은 어릴 적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으로 연구 참여자 B는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탐색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찾고,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10년째 한 직장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생략) 이제 알았다! 내가 무엇을 진정 좋아하고 꿈꾸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다.”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의 가치관과 부서관 직무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계획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원하였다.

“나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을까 싶다. (생략) 사람이 나로 인하여 치유되길 원한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3회기 ‘내 이야기 실행하기’에서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할 수 있는 ‘강사, 행복 전도사, 진행자’ 등의 직업을 통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행복을 전하는 직업군을 희망하였다.

“진행자, 강사, 행복 전도사 등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부분이 나와 정말 잘 맞았으며,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연구 참여자 B는 군 복무를 즉시 중단하기 보다는 현재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연구자와 함께 직무에 대한 탐색과 실행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이러한 탐색과 실행계획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느꼈다.

(생략)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다. 나를 위한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작은 도전, 작은 노력,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나를 위한 삶으로 이어지길 기도한다.”

연구 참여자 B는 환경의 영향으로 자신이 부사관을 선택하였음을 깨닫고, 부사관의 직무와 자신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였고, ‘도전, 행복, 즐거움’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이룰 수 있는 직업으로 ‘행복 전도사, 강사, 진행자’ 등 다양한 직업의 정보를 통해 어떤 직무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부사관으로서의 직무에 동기와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 연구 참여자 C의 경험 분석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의 직업 만족도와 나를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2회기에서 ‘내 이야기 하기’의 질문에 대하여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느라 작성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작성 요령을 다시 질문하거나 자신의 답에 대해 맞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드러내거나 이야기했던 경험이 거의 없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어색하고 어려웠다.

“(생략) 전에는 나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MCS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비교적 간단했던 질문들에도 답변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 이야기 이해하기’에서 연구 참여자 C는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경험이 없었고,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스스로를 고립시켜 성장할 기회들을 놓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MCS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생략) 조직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 왔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경험과 달리 굳이 나에 대해 말하지 않았음에도, 간단한 질문을 통해 나조차 인식하지 못한 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략) 스스로를 오히려 고립되거나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략)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 터득하게 된 것 같아 앞으로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의 감정을 돌볼 필요성을 느꼈으며, 나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나의 특성과 원하는 직무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은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위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나는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즐거우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C는 3회기 ‘내 이야기 실행하기’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환경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직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군의 특성상 일정 시기마다 주변 동료들이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직무 만족도에 혼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생략) 즉, 나의 직업 만족도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적인 요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깨닫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 C는 현재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으로 현재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직무 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탐색하면서 직업을 유지한 채 자신이 원하는 자기 개발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갔다.

“(생략) 최근 새로운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서 존중과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 현재 직업을 유

지한 상태로도 내가 원하는 다양한 영역(언어, 기술 등)들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C는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군 조직의 특성으로 일정 기간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바뀌는데, 직무의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직무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연구 참여자 C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변 동료들’이었다. 주변 동료는 연구 참여자 C가 직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방향이 ‘언어’와 관련된 직무임을 발견하면서, 부사관 직업을 유지한 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탐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라. 연구 참여자 D의 경험 분석

연구 참여자 D는 현 직업의 직무만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 나에 대해 탐색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2회기의 ‘나의 이야기 하기’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충분히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이 되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이해하고, 특히 동경했던 인물이 나의 일부라는 피드백에 대하여 놀라움과 안정감을 느껴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회기를 통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지나쳐왔던 나의 내면과 삶의 흐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략)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모습이 실제로는 이미 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 D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였고 이러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도 자신의 일부분임을 인정하였다.

“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용기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D는 부사관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직무가 자신의 적성,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어느 정

도 직무에 만족하고 있어 내적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영향으로 현재의 직무에 일부 만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모순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활동을 하면서 강하게 느낀 감정은 ‘모순된 감정의 공존’이었습니다.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도 않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을 만큼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생략) 혼자 집중하여 일을 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껴, 본래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업무를 함께 하면 성취감, 유대감,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흥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구 참여자 D는 부사관의 직무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특성과 불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생략)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동기 부여가 잘되지 않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더 열정적으로 접근하고 정보를 찾고 실행으로 옮기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흥미와 관심이 진로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직무의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을 게으르고 실행력이 없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던 관점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위로하였으며, 자신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느꼈다.

“사실 나는 스스로를 게으르고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전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나의 성격을 이제는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도 된다는 여유를 가지며,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회기의 ‘내 이야기 실행하기’에서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이미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자신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돌아보니,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향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온 행동은 아니었지만, 무엇이라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내가 생각했던 나보

다 좀 더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D는 주변 동료들의 영향으로 부사관 직업에 일부 만족하기는 하지만, 직무가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이 구성한 내러티브 안에서 진로 의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흥미’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 환경이 아닌 흥미가 가장 큰 요소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카페 운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창업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현 직무에 동기와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주도적 진로 탐색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목표 수집 방법을 통해 4명의 육군 부사관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MCS 워크북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을 3회기 실시하였다. 회기 종료 후 공통된 질문지에 대한 자기성찰을 회신받아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MCS 워크북을 활용한 진로 탐색 경험 분석 내용은 연구 참여자별 자신의 스토리 안에서 진로 탐색에 대한 의미 단위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된 주제와 하위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재해석함’이며, 하위주제는 ‘자신의 이야기 구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함,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의 주제와 하위주제 안에서 각기 다른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A와 D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껏 노력해 온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돌보았다. 연구 참여자 B는 부모님의 양육 환경의 영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탐색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오랜 시간 느껴왔던 이유 모를 답답함이 해소됨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 C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개인적 특성과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폐쇄적인 군 문화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내러티브 안에서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보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함’이며, 하위

주제는 ‘나의 진로 선택 이유를 알고 나의 직무 특성을 이해함, 자신의 가치와 부사관 직무의 가치관 일치 여부 확인, 자신의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 진로를 계획함’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직무 특성을 이해하면서 현 직무와 자신의 특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래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A는 자신과 부사관 직무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B와 D는 일치하지 않음을, 연구 참여자 C는 일부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각기 다른 결과에 따라 미래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과 현 직무의 특성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부사관 직무에 대한 동기가 향상됨을 보였다. 이는 자신과 직무를 이해하는 진로 탐색 과정의 경험이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조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건강한 군 조직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진로 탐색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Savickas(2012)의 선행 연구에서도 내러티브의 개입이 내담자가 먼저 개인적 이야기를 해체한 후, 재구성할 수 있는 안전한 대화를 제공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MCS 워크북 개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내적 특성을 이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험의 과정이 분석되었다. 또한 공윤정(2014)의 연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접근은 진로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직무에 대한 의구심을 벗어나 의미를 찾고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스토리 구성을 통해, 현 직무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경험은 자신과 부사관 직무가 일치한 연구 참여자 A 외, 자신과 부사관 직무가 불일치하다고 밝힌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부사관 직업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와 동기,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MCS 워크북을 활용한 군내·외 선행 연구의 적용 대상은 진로 미결정 청소년과 대학생, 경력 전환기의 성인 등으로 직업 세계의 진입 전인 일반적인 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처럼 직업 세계에 진입하여 최소 8년 이상 근무 중인 연구 대상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는 진로 탐색을 통한 경험이 자신과 현재 근무하는 직무 특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더불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폐쇄적인 문화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해 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도구로서 MCS 워크북을 활용할 수 있음도 기대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특수 조직의 직업군이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경험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보았듯, 주도적인 진로 탐색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였던, 자신

과 부사관 직무의 가치관이 일치함을 발견하고 부사관으로서의 직무의 의미·동기를 부여받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는 부사관으로서의 직무가 자신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다른 직무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단계로서 현재 직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동기와 의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과 직무만족도 요인도 알아차림으로써 부사관으로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4인의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육군 부사관이라는 직무에서 각자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MCS 워크북을 활용한 진로 탐색의 경험이 개인은 물론, 특수한 군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을 밝혔다. 최근 군내 전역률과 이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활용은 군인으로서의 의미와 자긍심, 더 나아가 개인의 가치관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안정된 전투력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연구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가 ‘육군’과 ‘부사관’으로 제한되었다. 특히 부사관과 달리 장교는 대학 생활을 통해 입대 전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육군과 다른 조직군(해군, 공군, 특전사 등)의 특성 및 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른 계급과 조직에서의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이 군내에 필요한 교육임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회기 종료 직후 작성한 자기성찰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나, 제한적인 연구의 범위로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주도적 진로 의사결정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대면으로 만나, MCS 워크북을 작성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하는 스토리를 들어주었다. 연구자는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CS 워크북에 안내된 사용 지침과 해석본 외 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참여자의 스토리를 경청하고 반응 기재를 사용하였기에 자기-학습으로서의 명확한 효과를 밝혀내는데 제한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특수 조직의 특성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로 MCS 워크북이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가의 도움이나 개입 없는 사용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군내에서 활발히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공윤정 (2014).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15(1), 27-43.
- 국감자료 (2013). **21세에 임관한 고졸 부사관**.
- 국민일보 (2025). **부사관이 사라진다... 5년새 95% →42% 반토막, 왜?**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859364>, 2025년 10월 인출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 연구**, 15(6), 2311-2325.
- 김영미, 윤재성, 김봉환 (2020).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자기 명료화를 위한 온라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탐색적 접근. **진로교육연구** 33(3), 135-157
- 김한결, 박은영, 이현진, 양지웅 (2023). 지방 사립대 학부생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인식: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6(1), 199-223.
- 선미진 (2024). 진로구성을 위한 생애-설계 개입의 효과성 비교: CCI와 MCS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종숙 (2022). MCS 워크북을 활용한 경력단절여성의 내러티브 진로구성에 대한 질적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연, 신효정 (2025). My Career Story를 활용한 고등학생의 생애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성 검증. **진로교육연구**, 38(2), 145-175.
- 임은미 (2025). 저 경력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내 위치성 인식 및 자기옹호와 학생옹호 실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교육연구**, 42(3), 735-760.
- 최지은, 조용선 (2022). 대학생 진로 자기주도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5), 131-149.
- 한국경제 (2025). ‘부사관, 꼭 가고 싶습니다’ 軍 부스도 북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818721>, 2025년 9월 인출.
- Arthur C. Bohart & Karen Tallman (1999). How Clients Make Therapy Work: The Process of Active Self-Heal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144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e: experienceand stay in*

- qualitative research*. SF: Jossey-Bass.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McGraw-Hill.
- Gelatt, H. B. (1962). Decision making :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Ginzberg, E. (1984).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69-191. San Francisco, CA:Jossey-Bass.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tung, P. J., & Santilli, S. (2018). My Career Story: Description and Initial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6, 308-321.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 Van Vianen, A. E.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 Savickas, M. L., & Hartung, P. J. (2012). *My career story: An autobiographical workbook for life-career success*. Kent, OH.
- Savickas, M. L. (2015). Career counseling paradigms: Guiding, developing, and designing. In P. J. Hartung, M. L. Savickas, & W. B. Walsh (Eds.), *APA handbook of career intervention, Vol. 1. Foundations*, 129-14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vickas, M. L. (2016). Reflection and reflexivity during life-design interventions: Comments on Career Construction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7, 84-89.
- Savickas, M. L., & Hartung, P. J. (2021). My Career Story: An Autobiographical Workbook for Life-Career Success. *Career Construction Workbook*.
- Spheris, C. J., Young, J. S., & Daniels, M. H. (2013). *Counseling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Pearson Education, Inc.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YTN (2024), 절반도 못채웠다... 심각한 대한민국 군 상황. https://www.ytn.co.kr/in/0134_202409301800042137, 2024년 9월 인출.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Republic of Korea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Participating in the MCS Career Decision-Making Program

Jeong, Nyeo Reum · Lim, Eun Mi

In this study,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career exploration using the MCS workbook among non-commissioned officers currently serving in the Army were analyzed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For this purpose, four research participants who met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select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and career exploration using the MCS workbook was conducted over three sessions for each participa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wo common themes and five subdomains were derived, and the meanings of the experiences showed different experiences and structures for each participant within their diverse contexts. Through this process,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structed their own stories, commonly experienced emotional stability, and were able to discover their own meaning in the occupation of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ains the process through which members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al occupational group experience self-directed career exploration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and voices.

Keyword: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Constructivist Career Counseling, MCS Workbook, Narrative Inquiry.